

미 대선의 교훈 '민주주의 험난한 여정'

불자 세상보기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공직자 비리 및 기강해이와 관련, 검찰과 경찰 및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비리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반부패 기본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제 2의 경제위기로 나라가 어수선한 요즈음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절실한 이 때 공직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경전 말씀을 통해 들어보자.



공직자 윤리

법답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사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중아함경)

■염치있게 사느라 고생 고생을 겪을지언정, 의(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속마음이 정직하고 걸모양이 유화(柔和)하며, 모든 사곡(邪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고 고요하고 견고하게 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미증유정법경)

(미증유정법경)

■곧은 마음(直心)은 곧 보살의 정토나, 보살이 성불할 때에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게 된다. (유마경)

(유마경)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그렇게 부정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대살차니건지소설경)

(대살차니건지소설경)

■3야도의 고통이 되는 근본은 탐욕이 으뜸이고 피안(彼岸)에 이르는 6가지 가운데 힘따라 도와 주는 것이 제일이다. 아끼고 탐내는 것은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는 것은 나쁜 길을 막는다. 3일의 짧은 기간이라도 마음을 닦았다면 천 년의 보배요, 영원한 줄 알고 탐낸 모든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고 만다. (자문경)

(자문경)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결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한다. (능엄경)

(능엄경)

■차라리 도(道)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리려는 일이 없다. (육도집경)

(육도집경)

■아첨하는 마음은 도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한다. 마땅히 아첨은 자타를 속일뿐이어서 불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교경)

(유교경)

2억 6천만명의 나라, 한국의 50배에 달하는 영토를 가진 나라,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 미국을 대표할 대인인 선출이 어려울 것을 겪고 있다. 겨우 수 백 표를 놓고 지금 갈등중이다. 누가 대통령이나를 놓고, 플로리다주 산수에 여념이 없다. 많은 나라들은 셀 때마다 틀리는 팜비치의 계산법을 즐기고 있다.

인구의 40%가 안되는 1억명이 투표하였고, 80%의 반대자 혹은 방관자들도 불구하고 총인구의 20%의 지지율인정 단순히 몇 백표 더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권력을 위임 받는 민주주의, 이른바 인민지배 (democracy)의 아이러니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대의정치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있어왔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지배라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이념은 아크로폴리스의 아고라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에서나 가능한 전설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통치 권력은 그 몇 백 표의 대의(代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말했다시피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외부상황(적), 정치문화, 그리고 제도에 의한 지배이다. 그런 점에서 '형제 없는 모래알 같은 개인이 아니라 배타적이면서도 자발적 연대로 충만한 복합체, 수백년 지속되어 온' 미국 민주주의가 이번 일로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제도에 의한 지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처칠은 어느 주에서 단 한 표만 달아도 선거인단 정부를 씩씩이하는 섣달 같은 선거제도를 최악의 민주주의의 비탄한 바 있다. 이 제도에 서 개인의 권리 양도(투표행위)는

차이 차별하지 않는 무차정신 더 절실

냉혹한 합리성으로 정의-평등 계산불가



구승희 동국대학교 윤리학

오직 주(州)단위에서 대표될 뿐이다. 선거인단 선거제도는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연방 헌법이 기초될 당시 1인 1표의 직접선거방식이 채택되지 못하고 남부, 백인에게 유리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각 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연방국기인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였으며, 역설적으로 이는 200년 이상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주의라는 심원한 갈등을 통합하는 힘이 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정책도 원시적인 지역주의에 기초해서 6:2로 이기고 있는 9회초에 벤틀을 대는 (예를 들면 지난번 한국시리즈 마지막 경기) 것과 같은 잔인한 대통령

선거를 즐기는 우리로서는 남의 나라 제도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우리의 대선에 비하면 차라리 덜 야만적이다. 민주주의는 근대적인 합리적 계산의 산물이 아니다. 법률, 계약, 경제적 합리성은 후기 산업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합리적 계산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효행성,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 등 근대 이전의 문화적 관습은 민주주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이른바 두 당사자에게 법적 판단보다는 초기 미국 혁명정신에 입각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위대한 세계시민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토마스 페인

(Tomas Paine)의 휴머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사회적 다이내믹스의 원천은 미국의 종교적 전통이다. 초기 청교도에서 최근의 모르몬 교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종교적 전통은 강한 개인주의와 공동체 지향성이라는 미국인의 이중적 가치를 조정하는 두터운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을 해 왔다. 미국 대선은 냉혹한 합리성만으로는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계산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었다. 불교의 지배정신은, 셀 때마다 틀리는 '플로리다식 정의(正義) 계산법'을 계산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새로운 세기의 합리성이다. 그 힘은 바로 감지 않음을 갈고 하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무차(無差)정신에서 나온다.

"다종교 사회 폐습 성역화 해체"

윤이훈 교수(서울대 종교학)



오늘날의 한국 종교는 다종교상황을 이루고 있다. 불교, 유교, 기독교와 같은 세계종교가 공존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많은 한국민족종교가 활동하며, 무속은 사머니즘의 원형을 의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다종교 사회는 문제를 안게 된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절대확신을 표현하는 행동이 타종교인을 탄압하거나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곧 교단과 사회에서 역기능으로 나타나게 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각 종교는 교단의 광장을 피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일정 선에서 종교의 선전과 전교(傳敎)의 전략·전술을 자제하지 않으면 전체 사회는 종교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되고, 이는 곧 사회를 파괴하게 된다.

종교단체들이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그 안에 안착하는 것은 문화창조 주체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다. 성역화의 첫째 경향은 교조주의, 경직된 전통주의, 그리고 훈련받지 못한 신비주의 운동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사회의 역사적 지성과 양심의 건전성을 잃지 못하고 자기 주장에 유배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각각 자신들이 양심을 대표한다고 믿는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들이 성역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스스로 다종교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적 이익집단의 하나가 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익집단으로서의 성역화는 결국 사회전체문제보다 자기 단체의 이익을 사회에서 경쟁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이런 사례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선교운동의 일환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피선교인에게 축복과 저주의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단군상 문제에서 보듯이 공격적인 태도로 타종교를 대하는 사례도 있었다. 종교단체들 간의 무리한 경쟁도 문제다. 개신교를 비롯해 불교, 가톨릭, 원불교 등 많은 종교단체들이 북한문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지만 경비와 인력의 분배, 선교방식 등을 서로 협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별 단체의 개별성을 특성화하는 것은 성역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종교 사회의 폐습인 성역화 과정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고 이에 언론과 종교계, 학계, 문화계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구체적인 공동목표를 협력해서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 교육, 교통, 도덕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일상에서 접과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제에 대해 종교단체들이 사회적 주체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고민해야 한다.

건전 종교문화 발전 세미나

주제발표 요약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회장 이만신 목사)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건전 종교문화 발전 세미나가 13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7대 종교단체 성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윤이훈 교수(서울대 종교학)의 '건전 종교문화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모색' 주제의 기조강연과,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학)의 '건전 종교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주제발표를 요약했다.

"내종교만..." 맹신 버려야 화합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학)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특정종교가 국가의 지도적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종교전통들이 공존하는 다원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종교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며, 그 상충 가능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이다. 종교대립의 심각성은 그 절대적 신념체계 때문이다. 통상의 가치기준은 상식적이며 상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지만, 종교적 가치기준은 언제나 주관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 종교전쟁은 없었다. 그 까닭은 관용을 표방하는 불교가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불교는 자신의 믿음 이외에 다른 믿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물론 이 관용성을 한국인의 국민적 심성과 관련해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은 유난히 현세적 복복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내세라든지, 자유·평화 등과 같은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욕구들이 종교에 그대로 투영될 때, 종교 또한 현실 중심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삼아야 할 것은 한국인의 기복성이 이기적일 뿐 아니라 현세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동시에 여러 종교들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종교들이 효교화되면서 갈수록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최근 개원한 '체불진시관'은 우리시대의 종교적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표상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대화부재'에 있다고 보여진다. 종교적 대화는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며 본질적이라기보다는 현상적이다. 대화의 패턴이 보다 지성적이어야 하며, 그 주제 또한 보편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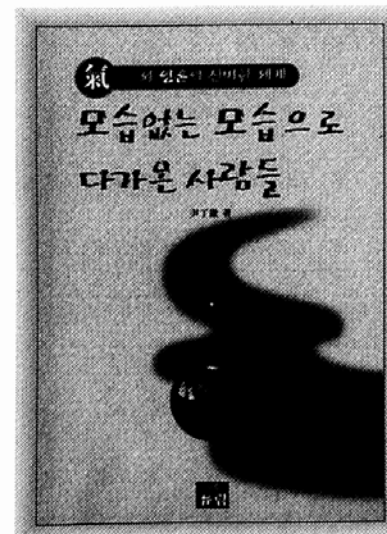
한국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교학적 기반이 미약하고, 열렬한 신도만 있을 뿐이고, 철저한 자기 성찰의 수도적 자세가 부족하다. 따라서 독선과 자기도취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타종교에 대한 배척이 동일시되는 안된다.

종교적 대화는 반드시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지 않아도 된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서로의 종교적 가치를 인정하며,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이 방편임을 인식하는 '종교정신'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 속에서 진여(眞如)를 향해 걸어가자는 동반자인 것이다.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별적인 영가천도 능력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신비한 기(氣)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윤정주 저 도서출판 유림 펴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몸의 아픔이 천도가 안된 보이지 않는 영혼(靈魂)의 의식인 기(氣; 에너지)체가 사람의 몸 속에 시공을 초월해 들락거리므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초능력적 체험 이야기를 세계역사상 최초로 그 이론을 세밀하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밝혀놓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초능력을 소유하고 나서도 저자의 능력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중국을 왕래하며 중국 원국학의 진인(眞人)인 장지상(張志祥) 교수로부터 기(氣)와 광(光), 음(音)의 이론으로 구성된 원국학(元極學)을 전공받았으며 원국학(元極學)연구와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 윤정주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아무 곳에서나 어떠한 의식(儀式)도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1~2초 내에 영가천도(靈駕遷度)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아픔을 원격(遠隔)으로 해결하는 수행(修行)에서 얻어진 독특한 초능력을 견비하고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알려 주고 심신의 안정을 바르게 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기(氣; 저자의 마음에너지)를 서울과 대구의 수련원에서 시공을 초월해 나누어주며 해결해 주고 있다.

지금도 우주공간에 떠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또 그렇게 떠돌게 될 예비영혼들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의 구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글 솜씨를 마다하지 않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또한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지름길로 인도하기 위한 생각에서 미흡한 실력이지만 수련원을 열었습니다.

- 책의 본문에서 -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라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개비방망이 책입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진어氣 수련원 원장 윤정주

영남일보, 매일신문 논평기자중에서 -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 팩스 : 02-736-7148